

2024년 9월 8일(주일) 제1699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2024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교회 사랑 프로젝트 서울교회 '사랑 나눔 장터' 개최

10. 18(금)부터 10. 19(토) 양일간 '서울교회 사랑 나눔 장터'를 개최합니다.

'서울교회 사랑 나눔 장터'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서울교회 바자 정신을 아름답게 계승한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나눔 장터입니다.

특별히 올해 바자는 교인 기업인 홍보책자를 바자 기간 내 제작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교회 성도님께서는 함께

하는 즐거움을 나누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성도들께서도 이번에 제작되는 기업 홍보책자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셔서, 바자 행사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영업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자영업 성도님들은 교구 간사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라!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프랑스 개신교 연합의 총회장 방문

9월 29일(주일)

9월 29일 주일에 프랑스 개신교 연합 총회장 엠마누엘 세이볼트(Emmanuelle Seyboldt) 목사와 국제부장, 통역 선교사, 수행원 등 총 네 분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총회장인 엠마누엘 세이볼

트(Emmanuelle Seyboldt) 목사는 이날 1, 2부 설교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엠마누엘 세이볼트 목사
(Emmanuelle Seyboldt)

1층 여자 화장실 리모델링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성도의 가정이 교회 1층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목적헌금을 드린 바 교회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시급한 여자 화장실 변기 교체를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바닥, 칸막이 등 추가 보수 예정입니다.

목적헌금을 드린 손길에 감사드리며 성도 여러분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 가을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고린도전서	화, 오전 10:30-12:00	9. 3-10. 22(8주)	최중국 목사	서울교회 603호
욥기	금, 오전 10:30-12:00	9. 6-10. 25(8주)	장석남 목사	서울교회 603호
살롬대학	목, 오전 10:30-13:30	9. 5-11. 7(10주)	박미라 전도사	서울교회 101호

금요기도회 운영 변경

9월 13일(금)부터

교회는 지난 9월 4일(수) 9월 정기당회에서 금요기도회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회가 가족기도회와 청빙기도회로 모이는데, 이에 더 힘을 모으기 위해 현재 금요기도회를 교역자 주관하에 성도개인기도회(20시-22시)로 변경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교회사 50장면'

단행본 출간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손달익 위임목사님께서 순례자에 한국교회사 50장면을 연재하여 우리 역사 한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금번 순례자 편집부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여 한 권의 단행본으로 발간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힘들고 두려울 때

눅 12:1-12



손달익 위임목사

예수님 공생애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를 주관하고 결정하는 세력이 몇 그룹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성전을 장악한 종교 세력 그리고 각 지역과 지파들을 대표하는 원로(장로)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주 충돌하고 이견을 노출하며 항상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치권 내에서도 헤롯왕의 세력과 빌라도 총독의 세력이 충돌했고 종교 세력들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등이 견해를 달리하고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의

견이 늘 일치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사역의 중반기가 되면서 이 상황을 매우 두려워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반기 즈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와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처럼 노력과 수고가 허실되는 것이 많을 수 있지만 결국은 30, 60,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전망 대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전망을 가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방해하고 저지하고 그들끼리 담합한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무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개인과 세상 역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1. 주저하지 말라

본문 1절에는 '무리 수만 명'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무리'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에 대하여 지치고 지도자들에게 실망하고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큰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병을 고치시는 등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곤비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곳은 항상 무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주님을 지지와 반대를 반복하고 모여들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던 구름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명백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시비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 대한 공격과 비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예수님께 반발하고 저항하며 반대의 선두에 섰습니다. 군중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과 기적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고 바리새인들은 반대의 구실을 찾기 위해 혈안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그들의 형식주의와 위선적 신앙생활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막강한 현실적 영향력을 가졌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관행과 위선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군중과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 세력은 세상의 모든 힘을 상징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는 군중의 힘이 나날이 막강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만연하여 예수님은 군중에게 아부하거나 여론에 편승하지도 말고 위선적인 외식주의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말고 세상 권력의 위협에 굴복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두렵고 걱정스러운 것이 인생사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힘이 두렵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에게 닥칠 미래도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얼마나 세밀히 살피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십니다.(요일 4:10, 롬 5:8)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깊은 한숨과 신음도 기억하시고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로마의 관료들, 수만 명의 군중들 모두가 두려운 존재이며 그들의 반응과 태도에 자기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의사결정이 자기들의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세상 사람이 너희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요일 4:18).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깊이 잠겨 있으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신의 안전을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한순간도 멈추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3. 나를 시인하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8-9절).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삶을 버리고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라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 그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실 것입니다. 이 시기는 노골적인 박해가 있었고 스테반, 야고보 등을 시작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속출했던 때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시기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피신하라거나 전도를 멈추라거나 반대자들과 협상하라거나 타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서 세상에 당당히 맞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 말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과 할 일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제자들의 안전과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신의 안전을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한순간도 멈추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 우리를 버리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전력을 다해 사랑하셨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주시면서 호흡이 멈추고 심장의 뜨거운 피가 식을 때까지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딱 한 방울, 피 한 방울이 아깝습니다. 부담이 된다며 떠나가고 상처 받았다며 외면하고 손해보고 힘들다고 도리질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인생의 어떤 마지막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사랑하신 내 주님을 날마다 자랑하고 날마다 시인하고 날마다 증거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도 구름 같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환영하여 주실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김혜령 성도
(1교구)

할렐루야! 새가족교육을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0년 전 서울교회 성전을 밟았었는데, 이제 교인으로 받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2월 첫 주일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은 나이에 교회 이전을 계획하며 예배드리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5주간의 교육이 매주일 기다리지면서 큰 위로와 기쁨으로, 저의 30년간의 믿음생활과 신앙관들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목이 곧은 성도로서 살았으나 하는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의 존재와 위치를 정확히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해 주시고, 영적 깨달음을 깊이 알게 해주신 박미라 전도사님과, 섬김의 교사로서 정성을 쏟아주신 김애리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명도 기대하며, 평안의 기쁨만 갖고, 용기 내어 출발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김규연 성도
(3교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가족들의 영향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새가족 교육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가정을 이루어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천국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소망합니다. 매주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을 뵈겠습니다.

다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



김준모 성도
(3교구)

새가족교육을 들으면서 교회 문화에 깊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새가족으로 교회 정착을 위한 뜻깊고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주간의 교육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삶이 열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적인 생명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5주간 교육에 힘써주신 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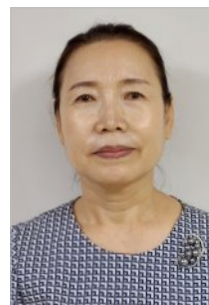
장억만 성도
(1교구)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로이 부어주시는 박미라 전도사님과 담당하신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서대학 1년 과정을 마치고 집사 안수를 받은 지가 어느새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믿음생활과 기도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번 5주 동안 새가족교육을 받으면서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바른 믿음생활과 성령충만하도록 열심히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믿음생활



남혜 성도
(1교구)

저는 성경필사를 두 번이나 하고 집사 안수를 받고, 지난 십여 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4주 전부터 서울교회 새가족 기초 신앙교육을 통하여 그동안의 저의 신앙생활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 새삼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와 감동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박미라 전도사님과 권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5주간의 새가족교육을 계기로 매일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믿음생활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자에서 서울교회의 기업인을 찾습니다



김영희 안수집사
(바자 총괄지원)

오늘까지 진행되는 '미리바자'에 많이 성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 바자는 10월 18일(금)-19일(토) 2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상품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주 교회 기업인을 찾는다는 기사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성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글 올립니다.

매년 바자를 진행하면서,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외부 위탁업체의 물건들이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성도님들의 의견이 많았고 이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바자위원회(위원장:김승록 장로)는 외부업체

의 입점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우리 교회 개인사업 하시는 성도님의 물건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바자를 단순히 물건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회 성도뿐 아니라 교회 주변의 믿지 않는 이웃과 함께하며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행사로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사업자들의 모임이 없고, 누가 어떤 자영업 하시는지 구체적인 명단 파악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기업인 홍보책자를 바자 기간 내 제작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는 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 몰랐던 집사

님, 권사님의 사업장을 알므로 이왕이면 교회 성도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번에 제작되는 기업홍보책자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셔서, 바자 행사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영업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자영업 성도님들은 교구 간사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너무 힘든 시기에 자영업 하시는 서울교회 실업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핸드벨 세계대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송명원 집사
(그레이스핸드벨
콰이어)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의 지휘자 송재월 권사님을 포함한 6명의 단원들은 이번 8월 12일(월)부터 17일(토)까지 일본 하마마츠시에서 개최된 제21회 핸드벨 세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17개국에서 800여 명의 링어들(Ringers)이 모여 팀별로 준비해 간 곡을 연주하기도 하고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교환하기도 하였으며 즉석에서 팀을 만들어 연주를 하기도 했고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합주(Mass Ringing)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말로만 들었던 2번째 옥타브 벨을 볼 수

도 있었고 다양한 주법의 연주 기법들을 접하고 다양한 연주 스타일들을 볼 수 있어 신선함을 느끼고 동시에 흥미로움을 가지게 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새삼스럽게 다가왔던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80이 넘는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링어들이 모여 스스럼없이 교류하며 핸드벨 연주를 통해 즐거워하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핸드벨 연주를 사랑하고 연주를 통해 행복해지는 모습들이 그 어느 모습보다 아름답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3천 개가 넘는 벨들을 한자리

에 모아 연주할 때의 웅장함과 감동은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 종탑의 거대한 종들의 연주를 연습하기 위해 고안된 핸드벨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순수 교회 음악 연주를 위해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 천상의 소리라고 불려지는 핸드벨 연주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주일 헌금송 연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다양하고 더욱 많은 연습과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돌리는 찬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강 : 사도신경 - 성자 하나님(6)

48문 :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47번 문답으로 인해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48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7문답에서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켜 놓은 것

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전통, 곧 칼케돈 신앙 규정에서 말하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과는 반대되는 내용이기에 48번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7번에서 인성과 신성을 구분하기 보다는 몸과 영으로 표현했다라면 어떨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의 몸 안에 곧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분리되지 않고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에, 신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그 분의 몸 안에 있는 신성은 죽음에게 굴복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47번 답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는 참인간이고 참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몸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분의 마음과 영 곧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49문 :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우리를 떠나 어딘지 모를 곳으로, 자신이 가시는 곳의 구체적인 지리적 위치를 알리지 않고 떠나셨기에,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 세

상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목적인지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세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무엇을’ 하실까를 생각할 때 답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신다’고 설명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를 생각할 때 답할 수 있는 것

으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곁으로’ 갈 것에 대한 확증이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늘로 올라가신지 오래지 않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증거입니다.

50문 :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는 것을 언급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49문에서 설명했습니다. 50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계시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곁에 계시실 때,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함으로써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게 합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다양한 성화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회화의 주제는 ‘Christ in Majesty’ 또는 ‘Jesus Christ on the Throne’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의자, 곧 왕이 다스리는 옥좌 또는 대관식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왕좌에 앉아서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을 쓰고, 성경 등을 들고 있는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함으로써 예수님 홀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심을 알려줍니다.



〈트라푸의 성 요한 교회에 있는 위엄 있는 그리스도〉
(Christ in Majesty from the church of St. John tou Trafu)



- 5교구
박정선 은퇴장로 김남순 은퇴권사 가정
(딸 박선영 결혼 감사드리며)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 하기
2. 앞열 혹은 2층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70인전도대 9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9.1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9.4	도르가, 루디아, 뵈뵈
9.8	자원자	바울, 엘리야	9.11	마리아
9.15	자원자	모세	9.18	추석
9.22	방학	이삭	9.25	리브가
9.29	방학	스데반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9월9일	월	겔 47-48
9월10일	화	단 1-3
9월11일	수	단 4-6
9월12일	목	단 7-9
9월13일	금	단 10-12
9월14일	토	호 1-8
9월15일	주일	호 9-14

이름:

맥체인 성경통독			
삼하3	고전14	겔12	시51
삼하4,5	고전15	겔13	시52-54
삼하6	고전16	겔14	시55
삼하7	고후1	겔15	시56,57
삼하8,9	고후2	겔16	시58,59
삼하10	고후3	겔17	시60,61
삼하11	고후4	겔18	시62,63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말씀과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2. 서울교회 4대 위임목사 청빙 과정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3.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과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전도사

박미라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 협동목사

양정호

◇ 사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태연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602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